

TV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사생팬' 논란...팬인가, 스토커인가

스타와의 친밀도 과시 속 인증샷 문화 생기면서 더욱 심화

팬인가, 스토커인가.

최근 그룹 JYJ(샤진)의 '사생(私生)팬(私生팬까지 쫓는 극성팬)' 폭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사생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스타들에게 팬이란 없어서는 안 될 '불가분의 존재'다. 반면, 스타를 향한 팬의 관심이 '애정' 수준을 넘어 집착으로 번질 경우 팬은 스타의 가장 강력한 '적'이 되기도 한다.

그룹 JYJ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사생팬들의 행동은 대중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JYJ 멤버 김준수는 "(사생팬들이) 우리의 신분증을 이용해 통화 내용을 노획했고 자동차에 위치 추적 GPS를 몰래 장착해 쫓아다녔다. 또 빈번히 무단 침입해 개인 물건을 촬영하고 심지어는 자고 있는 내게 다가와 키스를 시도했다"고 털어놨다.

박유천도 "대위 이후 감사하게도 대중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8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사생팬들에게 고통받았다"며 그간의 마음고생을 토로했다.

그럼 동방신기의 최강찬도 지난해 "장난 전화가 많이 와 전화번호를 바꿨더니 5분 만에 '번호 바꿨네요'라는 문자가 왔다"는 '섬뜩한'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또 그룹 소녀시대의 태연은 지난해 한 행



시장에서 공연을 하던 도중 무대로 난입한 남성 관객에게 끌려갈 뻔하다. 경찰원에 의해 가까스로 구출됐으며, 가수 휘성도 공개 방송 출연 도중 술 취한 관객에게 습격을 당했다.

전문가들은 '사생팬'이 등장한 이유를 경쟁 사회 속에서 돋보이고 싶은 개인의 심리, 사생활 침해에 관한 한국 사회 특유의 문화 등에서 찾는다.

서울대 심리학과 과금주 교수는 "'사생팬'들의 행동은 스스로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나는 스타와 이 정도로 친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점점 과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의 발달과 함께 이른바 '인증샷 문화'가 생기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고 덧붙였다.

대중문화평론가 정덕현 씨는 "사생활 침해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한국 사회 특유의 문화도 문제"라며 "특히 연예인의 경우에는 '공인'이라는 명목 아래 사생활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과금주 교수는 "사생활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팬들의 주류를 이루는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채워줄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4일(음 2월 22일 甲戌)

- 36년생 친분을 돈독히 하라. 48년생 불가피하다면 적극적이야 한다. 60년생 정정당당하게 대하는 것이 좋다. 72년생 계획이 필요하다. 84년생 힘들어 하는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88년생... 92년생... 96년생... 100년생...

- 42년생 정신적 사치에 빠져서는 안된다. 54년생 결과 속이 전혀 다를 수 있느니라. 66년생 평소 애의 연력이 없던 이로부터 간절한 만남의 제안이 있다. 78년생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줘야 한다. 90년생... 94년생... 98년생... 102년생...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program schedule table with columns for time slots and program titles.

Give me some feedback 조연 바랍니다. 倘若無人(방약무인) 결 방, 갈을 약, 없을 무, 사람 인. [출전] <사기(史記) 자객열전(刺客列傳)>

니하오 풍구위 清君側 qingjunce 왕 측근을 제거하다. '왕(君) 주변의 핵심 측근(側) 특히 간신들을 깨끗이 제거하다(清除)'라는 말로 의로운 행위를 나타내는 표현에서 출발했으나, 정권을 갈아엮는 반란의 명분으로 사용되어 중국 고전에 많이 보입니다.

오하오우 니혼고 來年 日本へ行くつもりです 내년에 일본에 갈 작정입니다. A: もうすぐ卒業(そつぎょう)ですね. 何をする予定(よてい)ですか. B: 日本へ行って勉強するつもりです. 金さんは. A: 私は大企業(だいきぎょう)に就職(くわく)するつもりです. B: そうですか. ぼくは どうも 語学力(ごがくりょく)が足(た)りなくて.